

과천소방서, 전기차 화재대응 강화...3일에 걸쳐 전직원 훈련

등록 2023.12.08 16:11:03



훈련 현장.

[과천=뉴스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전기 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만든 가운데 경기 과천소방서가 최근 3일만에 걸쳐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에 나서는 등 해당 자동차의 신속한 화재 진화에 주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8일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3일만에 걸쳐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을 했다. 신규 도입된 이동식 소화수조를 활용해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가 팀별로 1회씩 돌아가면서 진행했다.

화재에 따른 대응 방법 숙달과 함께 출동대원들의 현장대응 능력향상에 주력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물을 채워 열폭주 상태의 배터리를 냉각시키는데 등 현장 위주의 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숙달 ▲이동식 조립형 소화수조 설치 훈련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등에 주력했다.

나성수 소방서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 가운데 해당 차량의 화재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라며 “현장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해당 차량의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가 크게 늘자, 해당 차량 화재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오는 11일부터 이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와 K-아파트(www.k-apt.go.kr)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은 주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을 꼽는 가운데 충전 구역을 설치할 때는 옆 건물과 10m 이상, 어린이 놀이터·쓰레기 처리장과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

여기에 지하 3층 이하와 주동 출입구(피난 통로) 앞은 피할 것을 권고하는 가운데 가연성 물질이 있는 창고,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과는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둘 것 등을 조언한다.

특히 불이 날 경우 관리사무소는 안내방송을 하고, 출입 자동문을 모두 개방한 가운데 화재초기를 제외하고 직접 진압활동은 자제하며,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날 때는 차량의 문을 열지 말 것을 강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